우암학원 창학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9776호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음력 5월 5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日 오염수 방류 임박에 생산자도 소비자도 ‘패닉’

수산물 포비아·패닉바잉 혼란
“사놓자” 건어물 등 구매 행렬
민물양식 전환·어업 은퇴 고심
도, 해수부에 특별법·대책 촉구

‘소금대란, 수산물 포비아, 패닉바잉…’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만들어진 신조어다.

지역민들은 각종 수산물을 서둘러 구매하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민 등은 방사성 오염수가 서남해안까지 밀려올 경우 소금, 수산물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매뉴얼 등을 만들어 국민의 혼란을 진정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일본 후쿠시마발 방사성 오염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21일 찾은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 상가에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전 건어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미리 사놓으면 1~2년 사용이 가능해서 비축해 놓으려고 한다’,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서둘러 보내달라고 해서 사러 왔다’고 말했다.

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방사성 오염수가 장차 서남해안으로 밀려올 텐데 소금은 물론 생선, 건어물 등 해산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예년과는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행렬에도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사업을 아예 접거나 귀농 등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상인은 “30여 년 장사에 방사성 오염수 같은 이런 타격은 처음”이라며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업종을 바꾸든지 자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천일염 품귀와 가격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일염 소매 가격은 20㎏ 기준 평균 5만7840원으로 전월(3만1540원)보다 83%가량 상승했다. 올봄 잦은 비가 내리면서 천일염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천일염 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이어온 생업인 어업을 포기하겠다는 어민들도 있다.

여수지역 한 어민은 “앞으로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을 거 같아 겸사겸사 어업에서 강제은퇴 한 뒤 노후나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도지역 어업인은 “바다양식에서 민물양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중 수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신안군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 관계자나 학계 전문가들은 오염수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며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법·종합대책 마련 △수산물 사전수매(양식포함) 확대 △유통이력관리·원산지표시 강화 △소비위축 손실보상금 실시계획 수립 △해역 분석자료 방송 자막제공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조진용·박소영 기자

총선 10개월 앞… 선거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

국회 정개특위, 오늘 비례대표제 논의
“양당 연내 확정 없인 물건너가”
비례 확대·위성당 방지 등 시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맞춘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며 거대 양당이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며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들은 데 이어 두번째 논의다.

국민 500명 공론조사 결과 83.8%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공론조사 전 27%였던 전국 단위 비례대표 확대 찬성률도 7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소수 국민의 의견인 데다 정개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아직 내년 총선이 어떤 제도로 치러지는지, 어느 지역구로 획정되는지 알 수 없는 셈이다.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한달이 넘었고 선거제 개편 시기는 당초 언급됐던 것보다 두달가량 지났기 때문이다.

답보 상태에 놓인 정개특위 활동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여야 청년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선거제 개편은 어느 정도로 진척됐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 대의를 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며 “양당은 초당적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양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 정당 방지안’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 2면에 계속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수능 설명회 광주 대동고 등 광주진학부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최근 정부의 공교육 교과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발표에 따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설명회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탑환경건설·(주)탑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탑환경건설 (주)탑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